

고령층 추가 접종률 87.7%

진안군, 고령층 추가 접종 지자체 우수 수범사례 선정

진안군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회의에서 '고령층 추가 접종 지자체 우수 수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13일 기준 관내 7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률은 87.7%에 달한다. 이는 75세 이상 고령층 전국 평균 백신접종률인 61.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군은 이번 결과가 읍·면사무소와 지역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와 대상자 맞춤형 홍보 실시로 이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접종이 시작한 시점부터 민·관이 협동해 접종 홍보에 들어갔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추가 접종 안내 문자 확인이 어려워 접종 일정을 몰라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홍보물에 추가 접종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마을 이장은 대상자들에게 홍보물을 직접 전달을 하며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에 대해 안내해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12월을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실시 기간으로 지정해 관내 7개 위탁 의료기관 외에도 10개면 보건지소에서 추가 접종을 전면 실시했다.

특히 면 지역 행복콜버스와 행복콜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

통편의성도 함께 제공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빠른 안내를 위하여 마을 방송을 적극 활용해 접종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군은 13일부터 만 18세 이상 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3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접종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마을 방송을 활용한 안내와 읍·면사무소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담당자를 지정해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국내·외 관광객 명품 관광지로

무주반디랜드·머루와인동굴,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선정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무주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들에게 국내여행지로 추천하는 대표적 관광지다.

이들 무주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방역 우수관광지 125개소 가운데 포함되면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이곳을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얻게 됐다.

공사는 특히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2021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 코너에 지속적으로 노출해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인 '알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VK사이트(소셜 네트워크)게재 및 홍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홍보 및 해외 현지 여행사에 리스트가 제공되면서 무주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에 대한 왕성한 홍보가 기대된다.

군은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반디랜드 일원에 숲과 데크가 어우러진 야간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무주군의 관광비전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설천면 무설로 일원에 위치한 무주반디랜드는 곤충박물관을 비롯해 천문과학관, 청소년 수련관, 분수대, 산책로를 보유하고 있어 무주의 '오픈관광' 실현을 꿈꾸고 있다. 장년뿐만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에게 종합체험 학



무주 머루와인동굴.

습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다. 함께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 해발 450m에 위치한 무주 '머루와인 동굴'도 사시사철 관광지로의 발돋움 하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다.

연중 섭씨 12도~16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곳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이색적인 공간에서의 사진촬영과 데이트를 즐길 최적의 공간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와인동굴'을 조성한 이후, 전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주 머루의 독특한 맛과 향을 충분히 살린 특별 체험의 장소 마련돼 있다.반딧불이가 날아가는 형상의 화면과 머루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카페, 족욕이 가능한 공간 등도 갖췄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이형재 과장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지로 꼽힌 안심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의 관광지의 품격과 가치가 그만큼 높게 됐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현미 前국토부장관, 장수군 찾아 현안사업 점검

가야홍보관·친환경미생물지원센터 등 주요사업장 방문

장수군은 김현미 前국토부장관이 장수군을 방문해 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사업 설명 등에 대해 청취하며 현안을 살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은 장수군청을 방문해 장영수 장수군수, 김홍문 장수군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가지며 "장수군은 영호남의 중심에 위

치한 지역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국토부장관 시절부터 장수군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눈여겨 봤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장수군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이 2017년도 국토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수군은

주요현안사업이었던 장수~천천 하이패스IC 건립을 추진했으며,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국토청과 협조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진행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장수군이 경우역으로 포함된 제4차 국토철도망구축계획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가야홍보관, 친환경미생물지원센터, 스마트 융복합타운 등을 둘러 장수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장수군에 직접 와서 사업장을 돌아보니 장수군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며 "교통, 문화 등 잘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장수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민 장수까지 직접 찾아와 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김 전 장관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을 위해 교통,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현미 前국토부장관이 장수군을 방문해 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사업 설명 등에 대해 청취하며 현안을 살폈다.

무주군청 앞 성탄트리 점등

무주군이 13일 군청 앞에 설치한 대형트리의 불을 밝혔다. 트리는 군민이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군청 분수대에 높이 9m, 둘레 24m의 대형

조형물 외에도 광장 주변에 일루미네이션과 소형트리를 설치해 운치를 더했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회장 홍철원 목사)가 주관한 이날 점등식에는 홍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

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방역패스(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확인)했으며 사전에 행사장을 소독하고 현장에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점검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생활과학교실 운영 '호응'

무주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해 과목초와 구천초, 무주초, 무풍초, 부당초, 안성초 등 관내 6개 학교에서 수업(학교별 주 1회~)을 진행 중으로, 전년대교과교육을 받았다.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빅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생활 속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공유하며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과학교실'은 군비 포함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위원회 기금을 재

원으로 운영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3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창의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평생교육팀 최애경 팀장은 "초등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학 분야의 다양한 실험을 쉽고 재미있게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관심도 크다"며 "군에서는 생활과학교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친숙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